

“흥흥한 세상 가족사랑 일깨워줄 노래”



태진아, 새 앨범 ‘2016 태진아 꽃씨’ 발표

“요즘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뉴스가 잇달아 사회가 흥흥하잖아요. 이럴 때 가족의 애뜻함과 소중함을 노래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가수 태진아(63·사진)의 정규 앨범 ‘2016 태진아 꽃씨’에는 부인, 자식, 손자 등 가족을 테마로 한 노래가 주를 이룬다.

최근 용산구 한남동에서 인터뷰한 태진아는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한 요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아름다운 노래로 풀어보고 싶었다”며 새 앨범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동반자’나 ‘육경이’에서 부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고, 지난 2월 시청률 40%에 육박하며 종영한 KBS 2TV 주말극 ‘부탁해요 엄마’의 OST곡 ‘아내에게’를 불러 사랑받았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 ‘꽃씨’도 부인에 대한 사랑을 담은 곡으로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아코디언 등 네 가지 악기 연주가

심금을 울린다. 바이올린 연주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탈북자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 씨가 맡았다.

“내 가슴속에 심어는 꽃씨/ 당신 품에서 꽃피고 싶어 (중략) 인생 별거 있나 인생 별거 있나/ 우리 둘이서 꽃을 피워봐~”(‘꽃씨’ 중)

태진아는 “‘꽃씨’에서 당신은 부인이지만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 따라 사랑받는 연인, 주님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정요한 씨는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노래여서 울컥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역시 탈북 출신 피아니스트인 정씨의 부인도 “북한에서도 중국을 통해 밀수된 카세트테이프로 태진아 씨의 히트곡을 다들 접한다”며 “‘사모곡’, ‘동반자’ 등 유독 가슴을 울리는 노래들이 많았다”고 거들었다.

앨범의 또 다른 곡인 ‘자식걱정’에서는 ‘아들 딸자식은 한평생 빚쟁이지/ 사위하고 며느리는 한평생 손님이지/ 어떤 날은 자식 같고 어떤 날은

웬수같고~’란 노랫말이 부모 세대의 공감을 높인다. ‘꽃씨’와 달리 경쾌한 멜로디가 흥겹다.

태진아는 “평생 고생하는 아내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며 “부모는 자식이 결혼해도 손자까지 봐주며 자식 걱정하느라 각자의 인생이 없다. 이 노래를 딸, 아들들이 듣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자손녀’에서도 ‘할아버지 기쁨 사랑하는 손자/ 할머니 행복 사랑하는 손녀/ 가족들 모두가 축복이야~’라며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노래한다.

태진아는 이번 앨범에서 ‘꽃씨’와 ‘자식 걱정’을 더블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두 곡 모두 태진아가 작곡하고 아들인 가수 이루가 작사해 부자애를 과시했다. 태진아는 “가족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앨범에 아들이 참여해 더욱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이벌’인 가수 송대관과 함께 ‘갑사함니다’란 타이틀로 3년 만에 전국투어에 나선다. 5월 8일 부산, 14일 부천, 21일 광주, 28일 전주 공연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김성균/고아라/이제훈 주연

‘탐정 홍길동’ 내달 개봉

배우 김성균(36)이 여배우 고아라(26)의 미모를 다시 봤다고 밝혔다.

김성균은 4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이하 ‘탐정 홍길동’)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고아라와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함께 찍으면서 한 번도 예쁘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이번 영화 촬영 현장에서 아라의 모습을 보고 ‘네가 예뻐 구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고아라는 “성균 오빠가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멋있게 나온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전에 김성균이 멋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아니요”라고 답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

앞서 김성균과 고아라는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당시 고아라는 털털한 매력의 성나정을 연기했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부와 명예와 미모를 모두 갖춘 활빈재단의 상속자 황희정 역을 맡았다.

김성균도 ‘응답하라 1994’에

서 순박한 캐릭터인 삼천포였다가 이번 ‘탐정 홍길동’에서 냉철한 악역으로 변신했다.

올해 5월 개봉 예정인 ‘탐정 홍길동’은 사립탐정 홍길동(이제훈)이 어머니를 살해한 원수를 20년간 찾아 헤메는 과정에서 거대 검은 조직 광운회의 실세인 강성일(김성균)을 만나 대립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남매의 집’, ‘영승의 끝’, ‘늑대소년’ 등의 영화를 통해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준 조성희 감독의 신작이다.

조 감독은 이날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촬영, 조명, 미술, 연출 등 많은 부분에서 전문적인 필름누아르를 표방했다”면서 “미국의 50~60년대 하드보일드 탐정물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와 가공하고 변형하는 일이 관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007시리즈 제임스 본드처럼 캐릭터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면서 “한국에서 드문 만화적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번 영화를 관객들이 사랑해준다면 시리즈 제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배우 김성균, 고아라, 이제훈(왼쪽부터)

“다음 꽃청춘은 바로 당신”

나영석PD ‘80일간의 세계일주’ - 시청자 여행단 모집

배낭여행 바이어터로 유명한 나영석 tvN PD(사진)가 이번에는 시청자가 참여하는 세계 일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4일 tvN에 따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로 이름 붙여진 이 프로젝트는 80일간 시청자가 릴레이식으로 외국 여행을 경험한다. 총 1억원 예산 규모의 tvN 1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나PD가 기획을 맡았다. 1차 시청자 여

행단이 5월 초 여행을 떠나면, 꼬리물기 식으로 여행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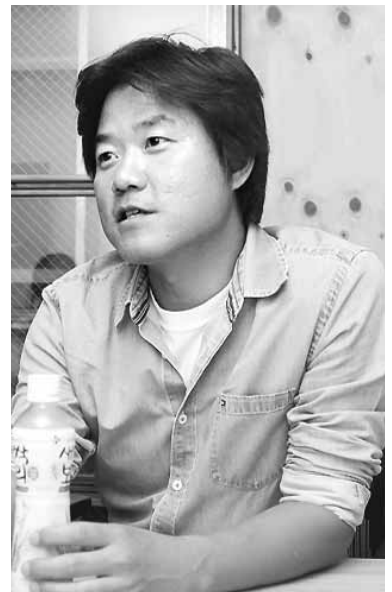
이들이 여행 중 겪는 일이나 풍광을 촬영한 영상이 tvN 디지털콘텐츠 스튜디오인 tvNgo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tvN은 80일 대장정이 끝나면 이를 압축한 영상을 디지털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나 PD는 “꽃보다 시리즈”를 촬영하면서 여행에 열정을 불태우는 젊은

이들 많이 만났다”면서 “금전 문제로 더 다양한 여행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그는 “1억원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갖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 목표”라면서 “돈을 적게 쓸수록 다음 팀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만큼 ‘여행의 의리 게임’ 같은 틀을 생각해 봤다”고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tvN 홈페이지(<http://www.chtvn.com/80days>)나 티빙 프로모션 페이지(<http://www.tving.com/80days>)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9 00 신문이야기 들춰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30 MBC 생활뉴스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10 20 시사인사이드 35	00 제20대 총선 후보자 법정 토론회	40 자유만만	4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동구 남구을 후보자 방송토론	10 좋은 아침
11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재)	00 앙코르 특집 다큐멘터리 <어메이징 아세안 1부 - 7국의 힘>	00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2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5 닥터 365(재)
1 10 뉴스특급	00 KBS네트워킹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00 1대 100(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콕지락
2 30 직언직설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10 특? 특! 킷츠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한국의 여성(재)	30 자동차부품생성 위키	55 아내 어릴 적엔	30 고고 다이노
5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특
6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지적뉴스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 인터뷰 이사람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05 선거연설방송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8 20 먹거리 X파일(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15 TV블로그 콕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9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45 국회의원 선거 후보 연설 55 스타킹
10	00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연설 10 시사기획 창	00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월화특별기획 <문스타>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천개의 비밀 여메이징 스토리(재)	00 KBS 뉴스라인 45 콘서트 필	10 우리동네 예제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아내가 빨랐다 남편발상(재)	35 한국인의 밥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육개장과 크랜베리 콩조림>
05:30 건강한아침	11:00 세계테마기행(재)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화산기행, 불의 신전 브로모>	11:40 한국기행(재)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2:00 EBS 정오 뉴스
07:00 레이디 버그	12:10 시대강남-우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지식채널e
07:45 로보카 폴리	12:50 숨은 한국찾기
08:00 댕댕땡 유치원1~3	13:3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08:45 코코코 다코	13:40 출거운 수학 EBS MATH
09:00 코코콩3	13:50 원더볼츠
09:20 원더볼츠	14:00 로보카 폴리
09:40 라이벌 토크 부모 <아이 키우기 힘든 부모님께>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40 다큐 오늘 <베트남 며느리, 국법질을 부탁해>
15:30 피터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열도의 낭만살경, 훗카이도>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16:00 코코콩3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16:30 코코코 다코(재)
16:00 코코콩3	16:45 댕댕땡 유치원1~3(재)
16:30 코코코 다코(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6:45 댕댕땡 유치원1~3(재)	17:45 로보카 폴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특! 특! 보니하니1~4
17:45 로보카 폴리	19:00 레이디 버그(재)
18:00 생방송 특! 특! 보니하니1~4	22:45 리얼극장 행복
19:00 레이디 버그(재)	23:35 시대강남
19:30 EBS뉴스	24:05 지식채널e(재)
19:50 극한직업 <악몽 버섯 채취>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5일(음 2월 28일 丁巳)
子 48년생 진정시킴스리코 애플을 먹을 수다. 60년생 원점에서 새들 게 살피보는 것이 합당하다. 72년생 이해관계인의 파격적인 제의가 보인다. 84년생 순간적인 상호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행운의 숫자 : 84, 72	午 42년생 오버 센스 하다가는 허방을 질 수 있으니라. 54년생 걸으려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리라. 66년생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대범하게 넘어가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9, 41
丑 49년생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분명히 극복되리라. 61년생 아주 적절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73년생 애매하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백번 낫다. 85년생 관계 때문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할 수다. 행운의 숫자 : 57, 92	未 43년생 한동안 잠잠했던 현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괴로움을 준다. 55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67년생 형세를 뒤집을만한 신촌의 새색이 아름답다 그치않다. 79년생 화려한 영광을 누리게 될 수다. 행운의 숫자 : 42, 50
寅 50년생 원칙대로 실행하는 것이 내실을 기하게 된다. 62년생 의심스러운 국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니 잘 살피야 하니라. 74년생 가까운 이와 함께하면서 가다가 잡히겠다. 86년생 가급적 빨리 조처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83, 06	申 44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란만한 일이 생기리라. 56년생 사세부득이 그렇게 됨을 알라. 68년생 지금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80년생 동반하는 국세에 활로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2, 66
卯 51년생 관계를 개선하면 예기치 못한 기회들과 접하게 된다. 63년생 표면과 내용이 모두 완벽해야 의미가 있느니라. 75년생 고정관념에 사로잡힌다면 일보다 나아가기 어렵다. 87년생 양질을 추구해야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19, 58	酉 45년생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간과하지 마라. 57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69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음을 알라. 81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1, 76
辰 40년생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통감하게 될 것이다. 52년생 잊고 있다면 놓칠 수도 있다. 64년생 부실한 결과를 조려하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76년생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88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1, 65	戌 46년생 부분적인 것이 큰 국면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8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70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82년생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78, 89
巳 41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53년생 상대의 장난이 보인다. 65년생 머지않아 적응하게 될 것이니 묵묵히 인내라. 77년생 한꺼번에 몰리는 형태이다. 89년생 집요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32	亥 47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59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1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83년생 통사다발적으로 속출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0, 99